예수님의 비유

49 돌아온 탕자

눅 15:11~32
찬송가 315장 (돌아와 돌아와), 찬양 35장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배울 말씀

1. 참된 회개의 의미와 그 축복을 압니다.
2.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마땅히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죄인을 대해야 함을 압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 ]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눅 15:17~19)

말씀을 이해하기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집을 나간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저주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돼지와 함께 누웠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실제로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죄인 역시 더러운 죄악 속에서 소망 없이 죽어 가기보다는 그 죄악의 삶을 버리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하루가 천 년 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 안아주시고, 겉옷을 입히시며,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를 환영하실 뿐 아니라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주십니다. 죄인의 지난 허물과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크나큰 사랑을 깨달은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공과말씀 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 55:7)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mercy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Is 55:7)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15장 11~24절 말씀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2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과정을 생각해 보며 적어봅시다.

기 _____ **승** _____ **전** _____ **결** _____

3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온 이후에 어떠한 생활을 했을지, 나의 신앙생활과 비교해 보며 교제해 봅시다.

4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맏아들의 잘못한 점을 알아보고, 우리는 새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맏아들의 모습	나의 모습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사 55:7	
월	겔 33:11	
화	눅 3:3	

수

눅 24:47

목

행 11:18

금

행 20:21

토

고후 7:10

하나님의 은혜

영국 어느 시골의 한 가정에서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소녀는 도시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자 소녀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을 멀리서나마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이지만 정원에는 자신이 가꾸던 장미꽃도 보이고, 어릴 때 뛰어놀던 잔디밭도 보였습니다. 자기 집 가까이 가보니 자신이 놀던 담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문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운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음성으로 "아버지!"하고 나지막하게 불러 보았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녀에게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으며 기쁘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디에 있다가 이제 오느냐? 우리는 네가 집을 나간 뒤 한 번도 대문을 닫아 본 적이 없었단다. 언젠가는 반드시 네가 돌아올 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질문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지 들어오지 않으셨는지 모르는 것은 자기가 밥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후 13:5)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인지, 그리고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